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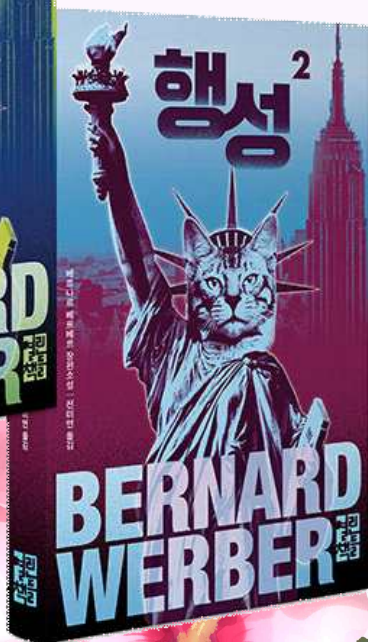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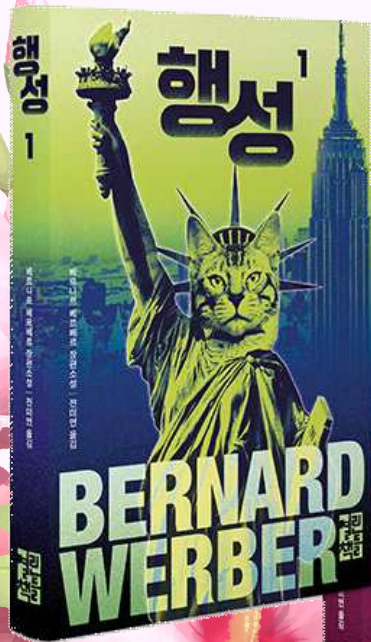
6월 도서



마음이 하는 일

오지은 / 위고

시간에 떠밀려 저절로 흘러가버리는 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꾸준히 바라보고,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 마음을 다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생긴 몇 년간의 흔적을 이 책에 담았다.



행성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 책들

『행성』은 독립적으로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작품이지만 본래 『고양이』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고양이』에서 시작해 『문명』으로 이어진 모험은 『행성』에서 대단원을 맞는다.

전쟁과 테러 감염병 때문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들고 황폐해진 세계. 주인공 고양이는 쥐들이 없는 세상을 찾아 이 행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